

신학문의 효시

八明學院의 由來

1. 소심리에 팔금학당이

팔명학원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맨 처음 소심(小深) 건너편 논 골짜기 우물 위 밭에 경술(1910년) 몇 해 전 유리창이 달린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신학문을 배우기 위하여 통학을 했다는 옛분(작고) 몇 분들의 성명을 전해 들을 뿐이다. 당시엔 물론 학교란 칭호가 아닌 사숙(私塾)이었음이 틀림없을 것 같다. 옛 할머니들이 ‘서당터’라고 했다지만 그렇다고 서당은 더욱 아닌 것 같다. 종래의 서당은 어떤 동네에서 1,2개 마을 아이들을 수용하는 개인집 방 하나 정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팔금 全島를 망라한 시설이란 점에서 학당(學堂)이란 이름이 어울릴 것 같아 팔금학당(八禽學堂)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 배움의 시설을 창설한 분이 당장(堂長)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경상도 분으로 김영직이었다는데 ‘지명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니 아마도 전관직명(前官職名) 진영장(鎭營將: 각 진영의 군사를 통솔하던 무관)을 그렇게 부르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그분은 이씨 왕조말 면장을 했다는 최기준(崔基準) 혹은 최권준(崔權準)씨에 의해 추방되고 최씨가 다음 당장을 했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경상도 분인 최정서(최주사라고도 함)씨가 당장을 했다고도 전한다.

선생이 누구지는 지금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학생은 장춘 최양호(崔亮鎬)·최갑룡(崔甲龍)·최오순(崔五淳)·강석중(姜碩仲)·최귀봉(崔貴奉), 대심 김성진(金聲振)

· 이완기(李完基), 원산 박백규(朴白奎) · 박양언(朴良彦), 읍리 이남룡(李南龍), 읍동 김병기(金炳基), 암태 서창석(徐倉錫)씨 등이었다고 한다.

연도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폐교되고 건물의 흔적도 없어지고 말았다.

2. 팔금학술강습소가 읍리에

팔금학당이 폐교된 후 수년 후에 읍리 324-1번지에 팔금학술강습소(八禽學術講習所)가 개소되고 읍리 이병림(李炳林)씨가 소장을 했다. 교사는 암태 서동오(徐東五), 목포 이채홍(일명 南圭, 후에 전남 도지사 역임), 암태 서광호(徐光浩), 목포 정두민(鄭斗玟)씨 등이었고 학생은 장춘 최재복(崔在福) · 최영호(崔榮鎬) · 최복삼(崔福三), 대심 최재봉(崔在鳳) · 최우근(崔佑根) · 김황진(金黃振) · 강장오(姜長五), 원산 김영수(金榮洙) · 김동철(金東哲), 읍리 이순기(李順基) · 서계술(徐季述) · 이영기(李英基) · 주성봉(朱成奉) · 주옥술(朱玉述) · 이금봉(李錦奉) · 이금채(李錦彩) · 이남주(李南柱) · 이웅기(李雄基) · 이동술(李東述) · 이항연(李恒演) · 이한술(李漢述) · 이좌기(李佐基), 서근 김동찬(金東贊), 진고 김웅동(金熊童) · 이봉기(李奉基), 이목 강경술(姜京述), 거문 김병일(金炳逸) · 김홍주(金洪柱), 당고 서복모(徐福模) · 김봉수(金奉洙) · 박형우(朴炯宇) 등이었다.

당시 1919년 3월 교사 서광호 씨가 고종황제의 인산(因山:국장)행사에 참례차 기좌에 다녀왔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3. 팔명학원으로 변신

1922년에 徐光浩 교사가 팔금학술강습소를 팔명학원(八明學院)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했다고 한다.

원장은 李炳林氏였고 교사는 암태 徐光浩, 완도 朴魯琪, 읍리 李順基 · 徐季述, 장춘 鄭善洪 · 崔洛弼, 서근 金東贊, 당고 徐福模, 읍리 李英基 · 李佐基 · 李錦述, 목포 李文熙(여자), 암태 千炳采씨, 탄동 李今突 등이 거쳐갔고, 생도는 장춘 姜宗明 · 崔公淡 · 崔南碩 소심 崔元植, 대산두 金玉春, 읍리 李奉龍, 이목 崔月童, 당고 朴炯甫 · 金班石, 고산 金順漢 · 崔公鎬, 거사 朴宗植, 원마 崔乙今(여) · 崔玉枝(여) · 姜天熙 등 외에 더 있었다. 빠진 분이나 그 후의 학생 명단은 생략한다.

1937년 6월 24일자로 팔금공립보통학교(八禽公立普通學校)가 개교되고 李淮(이회)교장이 부임하면서 팔명학원 건물에서 개교를 함에 따라 팔명학원은 원산리 742의 1 공회당으로 이사, 학원을 개원하고 원산 池奉宗씨가 院長을 맡고 교사는 읍리

李宗根·李錦述, 원산 朴鍾允, 대산두 金玉春(일명 瑛太) 씨 등이었다.

팔명학원은 연령초과로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만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인근 도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립 교육기관으로서 이름 그대로 당시 어두운 세상에 팔금을 밝히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배움의 전당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箕佐島 馬津·廣岩·柿西·方月·芋洞 등에서 부락당 3~6명의 학생이 노젓는 나룻배를 타고 원산까지 그 먼 거리를 마다 앓고 통학을 했고, 팔금 거사도에서도 통학을 했으며, 심지어는 당시 흑산면 우이도에서도 崔福喆 등이 원산에 와서 하숙(인척집인 金濟禧 씨 집에 기숙)까지 하면서 통학을 하였다.



팔명학원 최초의 기념 사진



팔명학원 마지막 기념 사진 1941. 11. 촬영

이 팔명국민학원(43년 개칭)은 8·15광복과 더불어 읍리의 국민학교로 통합, 학생들은 거의 전입학되고 주요 비품도 모조리 넘겨지면서 폐교되었다. 이때 마지막 교사는 金才三·朴榮淳 씨였다. -<瑛>-

筆者註 : 자료를 협력해 주신 읍리 李恒演·원산 池正夫씨께 감사를 드린다.

*** 桿沛 ***